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비교분석: 2000년 이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이 영 애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표된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 43편(조손가족 19편, 공동양육가족 24편)을 대상으로 기초사항(연도별 동향), 연구방법, 연구대상 특성, 연구내용의 범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수는 조손가족의 경우 감소,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두 유형의 가족 모두 면접방법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특성에서 두 유형의 가족 모두 연구참여자 수는 6-10명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그 외 인구학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에서는 모두 큰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구내용 범주에서는 두 유형의 가족의 조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의 의미, 긍정적 요소, 갈등요소, 갈등 해결방법 모두에서 공통점도 나타났지만 그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에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부모양육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과 향후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조부모, 양육경험, 질적연구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 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영애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발전시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 :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한서대학교)

E-mail : erbang@hanseo.ac.kr.

때 시간 아동이 태어나고, 조부모 또한 태어난다(Kornhaber & Woodward, 1981).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수가 점점 감소하다보니 노령인구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맞벌이 증가(Winefield & Air, 2010),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들은 조부모들을 더 이상 부양을 받는 위치가 아닌 손자녀의 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최근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약 6백만 명의 아동이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진, 정혜정, 2014).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정의(Jendrek, 1994; U.S. Census Bureau, 2000)되는 ‘조손가족’과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손자녀의 양육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공동양육가족’(Bowers & Myers, 1999)이라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조부모양육의 2가지 형태 중, IMF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과 가족해체의 증가(최혜경, 2002)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혈연중심의 문화로 인해 조손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0년대 초반, 정부에서 아동의 가족 내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요보호아동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제도 내로 편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박화옥, 김민정, 2014)하면서 조손가족의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1995년에는 35,194가구였던 조손가족이 2000년에는 45,225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3%), 2005년에는

58,101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4%), 2010년에는 119,294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7%)로 급증하였다가 2016년에는 109,241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6%)로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아동 중 대리양육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의 수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총 7,765명의 위탁가정 아동 중 약 46%인 3,458명이, 2005년에는 12,562명 중 약 60%인 7,552명이, 2010년에는 총 16,359명 중 약 66%인 10,865명이, 2016년에는 총 12,907명 중 약 67%인 8,594명으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을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공동양육’가족에서의 조부모의 참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 들어서는 조부모 양육참여 비율이 약 50%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두 가지 조부모 양육 참여형태를 종합해 볼 때,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조손가족은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사실, 과거 우리 사회가 대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조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태교 및 육아 방식을 전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의 지원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최혜순, 남효순, 2011). 이에 일반적으로 조부모 역할 수행 중 손자녀 양육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노년기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통해 젊음과 정열을 재경험하고, 생의 연속성을 느끼며, 인생의 경험과 지혜의 제공으로 생산성과 성취감(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즐거움, 만족감, 보상감을 경험하게 된다(Chen &

Silverstein, 2000; Cox, 2009; Jendrek, 1994).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노년기의 조부모 역할수행이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조부모들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김미영, 윤희미, 2015). 특히 노년기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고 통합해나가는 발달과업을 이루어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은 이런 발달과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놓는 ‘시간에 어긋난 역할’(off-time, time-disordered role) 이다보니(Seltzer, 1976)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집단보다 역할의 혼란 및 가중된 역할부담, 경제적 어려움, 체력의 한계, 손자녀의 친부모인 성인 자녀와의 갈등, 사회활동의 기회 제한 등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원경, 전제아, 2010; 김혜선, 2005; Backhouse & Graham, 2012). 이에 더하여, 노년기는 그 특성 상 일반적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Jarvick, Eisdorfer, & Bloom, 1973; Katona & Shankar, 2004)이므로 양육조부모들은 비양육 조부모들에 비해 우울하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기도 한다(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이러한 어려움은 조부모 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손자녀를 학대와 방임하거나 손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황미진, 정혜정, 2014)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반면, 조부모의 양육참여는 특히 가정의 해체를 경험했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던 손자녀들에게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기도 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지적 가족 분위기와 훈육구조를 제공할 때 손자녀들의 삶의 질이 고양되며(Brian, 2000), 손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olomon & Marx, 1995). 이에,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며(Sands, 신혜중, 2008), 전보다 ‘명랑하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의견이 76.8%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07).

이를 종합해볼 때, 대리양육자인 조부모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은 조부모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Green, 2004) 조부모 대리양육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형태(Balukonis, Melkus, & Chyun, 2008), 양육제공 시간과 기간(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므로, 자녀 세대가 3세대 자식을 부양할 수 없어 친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조손가족(최혜경, 2002)과 성인자녀의 맞벌이 등의 문제로 공동양육을 하는 조부모들의 양육경험은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김은정, 정순돌, 2011;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조운주, 201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동양육가족보다는 조손가족의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홍란, 김양호, 2009; 이미영, 2008; Baker & Silverstein, 2008; Dewdell, 2004;

Shlemo, Ari, Findler, Sivan, & Dolizki, 2010), 여성취업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양육가족에서 조부모의 양육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두가지 형태 모두에서 수행되는 조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가족 형태에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바로 질적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Moretti et al., 2011)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본질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박승민, 2012),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김봉환, 배주연, 외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질적연구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게 하고(Stern, 1980), 연구참여자의 심층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한다(Creswell, 2012).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해체 가정 및 맞벌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대표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핵심이 되는 양육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과 행동을 다루고 있는 질적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경향 및 연구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장점 뿐 아니라 갈등 및 어려움을 조망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기초사항(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내용의 범주는 어떠한가?

방 법

분석논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국회 전자도서관(www.nanet.go.kr)과 RISS, KISS, 뉴논문 및 스킨라 등에서 ‘조손’, ‘손자녀’, ‘조부모’를 주요 검색어로 하여 2000년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그 다음 검색된 논문 목록에서 ‘양육’, ‘훈육’을 주요 검색어로 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추가 검색을 하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질적 연구’를 결과 내 검색 주요어로 하여 추가 검색을 하였다. 검색된 총 49편의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한 뒤 ‘손자녀가 보고한 조손가족의 어려움’ 등과 같이 연구의 대상이 조부모가 아닌 논문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손가족 총 19편, 공동양육가족 총

24편으로 총 43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색기간을 2000년 이후로 제한한 것은 2000년도 이후부터 질적연구물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고(김봉환 등, 2012), 손자녀 양육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지에 출간된 질적 연구 논문을 내용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미등재지¹⁾) 모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절차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준거틀로는 박승민(2012)이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기초사항, 연구목적, 연구방법의 종류,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의 5가지 분석 준거를 참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 내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분류유목으로 제안한 틀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비슷한 의미들끼리 묶고, 이를 새로운 범주로 명명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한 권경인, 양정연(2013)의 평정방법을 참고하였다. 평정과정에는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인이 평정 및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조손가족과 공동

양육 조부모의 양육내용은 총 4개의 상위범주와 각기 6개~13개의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면서 두 유형의 조부모 양육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평정 시 2명의 연구자가 범주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된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사항, 연구방법, 연구대상, 양육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을 분석틀로 하여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 대상 연구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각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초사항에서는 학술지에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을 주제로 질적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게재된 논문을 2000년부터 출판연도로

분류하여 각 논문 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상논문이 다룬 질적연구 방법을 11개의 영역(근거이론, 현상학적연구, 문화기술지연구, 심층개별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 내러티브탐구방법, 사례연구, Q 방법론, 내용분석, 참여관찰자, 기타)으로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에서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의 상황을 좀 더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적변인(성별, 연령, 학력, 전직 유형), 양육환경(발생배경, 주양육자 유형, 손자녀 수, 손자녀 양육기간), 물리적 환경(배우자 유무, 성인자녀세대 동거 여부, 연구대상 표집 지역, 경제상태)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내용 범주에서는 조

1)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서, 현재 미등재 상태인 논문은 조손가족의 경우 1편,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1편 등 모두 2편임.

손가족과 공동양육 가족 조부모들의 양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각 질적 연구 내용을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상위범주 하에 각 가족유형별로 공통 및 구별되는 하위범주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항목

분류범주	세부항목
기초사항	출판연도
연구방법	근거이론, 현상학적연구, 문화기술지연구, 심층개별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 내러티브탐구방법, 사례연구, Q 방법론, 내용분석, 참여관찰자, 기타
연구대상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
연구내용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표 2. 연구내용 분석의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

상위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범주	하위범주
양육의 의미	내 핏줄 내가 거뒀야, 나의 업보, 양가감정, 자신의 존재감 확인, 삶의 활력소, 공생관계	내 핏줄 내가 거뒀야, 나의 경제력 부족에 의한 결과, 양가감정, 자신의 존재감 확인, 삶의 활력소, 공생관계, 보상심리
양육의 긍정적 요소	기쁨과 행복을 줌, 삶의 의미 발견, 자부심 및 가치감 느낌, 손자녀와 서로 의지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됨, 분노 줄어듦	기쁨과 행복을 줌, 삶의 의미 발견, 자부심 및 가치감 느낌, 성인자녀와 상부상조함,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노년기 삶이 확장됨
양육의 갈등요소	손자녀의 부모사랑에 대한 결핍감, 가족관계의 갈등 및 단절,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양육 및 훈육실체에서의 어려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함, 불안한 미래, 경제적 빈곤, 사회적지원 부족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족관계의 갈등,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양육 및 훈육실체에서의 어려움, 노년기 정체감이 약해짐, 미래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경제적 미자립, 사회적지지 부족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받기, 신앙생활의 힘,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성인자녀세대와 관계 회복 노력, 세월이 해결, 혈연에 대한 가치관, 현실을 인정함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받기, 신앙생활의 힘,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가족 간 협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평온, 육아와 개인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거리두기, 성인자녀에게 요구함, 감정 다스리기

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류기준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 과

게재논문 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단위로 게재된 논문 수의 연도별 추이는 표 3과 같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면서 201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5년부터 시작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2015년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게재 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8년에 3편, 2009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15년에 5편, 2016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해 질적 연구

표 3. 5년 단위 연도별 게재논문 수

연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게재 논문수	백분율	게재 논문수	백분율
2000-2005			1	4.2
2006-2010	11	57.9	5	20.8
2011-2015	5	26.3	13	54.2
2016-2018	3	15.8	5	20.8
	19	100.0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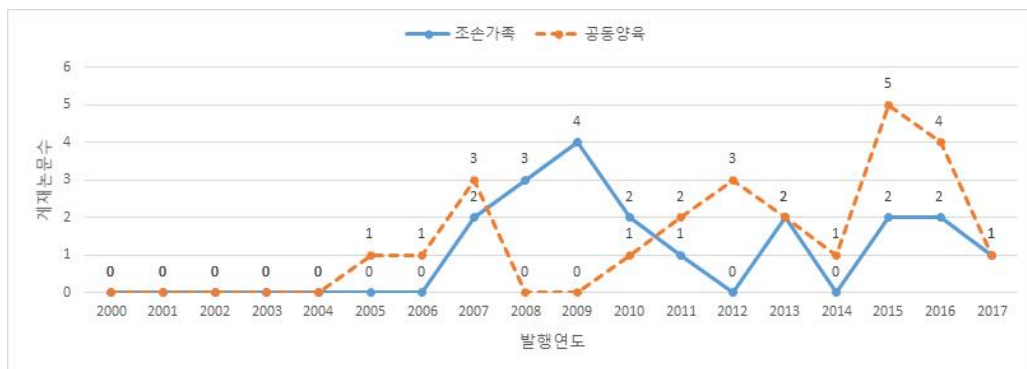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게재논문 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게재된 19편의 논문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게재된 총 24편의 논문을 연구방법 종류별로 비교분석하였다²⁾. 조손가족의 경우, 심층개별면접방법이 7편(36.8%)로 질적연구방법 중 가장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편(21.0%)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7편(29.2%), 심층개별면접방법이 6편(25.0%)로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

손가족 및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방법으로는 심층개별면접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방법

연구방법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게재 논문 수	백분율	게재 논문 수	백분율
근거이론	1	5.3		
현상학적연구	4	21.0	7	30.4
문화기술지연구	2	10.5	3	13.0
면접방법 (심층개별면접)	7	36.8	6	26.1
포커스그룹	1	5.3	1	4.4
내러티브	1	5.3		
사례연구	1	5.3		
Q 방법론			2	8.7
내용분석			1	4.4
참여관찰자	2	10.5		
기타			3	13.0
	19	100.0	24	100.0

2)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는 대상논문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그대로 반영함. 일부연구는 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으나(예, 현상학적연구 혹은 사례연구 등의 경우, 연구방법을 심층면접으로 제시함), 각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함.

연구대상 특성에 따른 분류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 연구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 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총 논문별 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의 총 5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양육가족 대상의 질적연구 수행 논문의 경우, 총 24편 중 2편은 문헌 및 드라마 등 2차 자료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구대상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총 22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각 연구별 참여대상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의 경우 6명에서 10명이 11편(63.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11명에서 15명이 5편(26.3%)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들이 6명에서 1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가 11편(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11명에서 15명과 1명에서 5명이 모두 각각 5편(22.7%) 순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6명에서 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수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논문 수	백분율	논문 수	백분율
1~5명	1	5.3	5	22.7
6~10명	12	63.1	11	50.0
11명~15명	5	26.3	5	22.7
15명 이상	1	5.3	1	4.6
	19	100.0	22	100.0

* 연구참여자의 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연구참여자 구성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8편(94.7%)이 대부분이었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5.3%)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7편(77.3%)이었고, 조부모와 성인자녀 및 며느리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22.7%)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변인

본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 중 조부모

에 한해 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였다. 41편의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는 모두 368명으로 이 중 조손가족조부모는 178명이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는 190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전직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모두 조모가 159명(89.3%), 175명(92.1%)로 대부분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연구 참여 조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70대가 84명(49.4%), 60대가 63명(37.1%)로 파악되었고,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60대가 87명(62.1%), 50대가 26명(18.6%), 70대

표 6. 논문별 연구참여자 유형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논문수	백분율	논문수	백분율
조부모	18	94.7	17	77.3
조부모+손자녀	1	5.3		
조부모+성인자녀, 며느리			5	22.7
합계	19	100.0	22	100.0

가 25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무학이 18명(38.3%), 초졸이 17명(36.2%)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고졸이 30명(33.7%), 중졸이 25명(28.1%), 대졸이 14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의 전직유형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무직이 79명(69.9%), 단순노무종사자가 21명(10.4%), 농림어업이 10명(8.82%)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무직이 35명(5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7명(11.7%), 농림어업이 6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7. 연구참여 조부모 성별

성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남(조부)	19	10.7	15	7.9
녀(조모)	159	89.3	175	92.1
합계	178	100.0	190	100.0

표 8. 연구참여 조부모 연령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50대	10	5.9	26	18.6
60대	63	37.1	87	62.1
70대	84	49.4	25	17.9
80대 이상	13	7.6	2	1.4
합계*	170	100.0	140	100.0

* 연구참여자의 연령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9. 연구참여 손자녀 주양육자 학력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무학	18	38.3	9	10.1
초졸	17	36.2	9	10.1
중졸	7	14.9	25	28.1
고졸	3	6.4	30	33.7
대졸	4	4.3	14	15.7
대학원이상			2	2.2
합계*	47	100.0	89	100.0

* 연구참여자의 학력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0. 연구참여 손자녀 주양육 조부모의 전직 유형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무직	79	69.9	35	58.3
관리자			1	1.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	11.7
사무 종사자			1	1.7
서비스 종사자	2	1.8	2	3.3
판매 종사자	1	0.9	4	6.7
농림어업	10	8.8	6	10.0
기능종사자			2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1	10.4	2	3.3
합계*	113	100.0	60	100.0

* 연구참여자의 전직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양육환경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양육 환경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손자녀 양육발생배경, 손자녀와의 관계, 양육 손자녀 수, 손자녀 양육기간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참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이혼 및 재혼이 96명(49.0%), 성인자녀 가출이 35명(17.8%), 성인자녀 사망 및 배우자 사별이 27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육 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맞벌이가 190명(100%)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친조모가 88명(76.5%), 친조부가 14명(12.2%), 외조모가 12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외조모가 65명(50.0%), 친조모가 51명(3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참여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친조부	14	12.2	3	2.3
친조모	88	76.5	51	39.2
외조부			3	2.3
외조모	12	10.4	65	50.0
친외조부	1	0.9		
친외조모	0	0.0	8	6.2
합계*	115	100.0	130	100.0

* 손자녀와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의 양육 손자녀 수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1명이 95명(57.6%), 2명이 62명(37.6%)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에는 1명, 2명이 모두 42명(44.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기간을 살펴

표 11. 연구참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 발생배경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성인자녀 맞벌이	3	1.5	190	100.0
성인자녀 이혼 및 재혼	96	49.0		
성인자녀사망 및 배우자사별	27	13.8		
성인 자녀 가출	35	17.8		
성인 자녀의 배우자 가출	6	3.1		
성인 자녀 연락두절	17	8.7		
기타(자녀의 중병, 별거, 파산, 장애)	12	6.1		
합계 *	196	100.0	190	100.0

* 연구참여자의 손자녀 양육발생배경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조손 가족의 경우, 발생배경이 중복 응답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표 13. 연구참여 조부모의 양육 손자녀 수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1명	95	57.6	42	44.2
2명	62	37.6	42	44.2
3명	5	3.0	5	5.3
4명			1	1.0
5명 이상	3	1.8	5	5.3
합계*	165	100.0	95	100.0

* 양육손자녀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4. 연구참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기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1년~5년	41	25.8	42	61.8
6년~10년	66	41.5	15	22.1
11년~15년	42	26.4	7	10.3
16년~20년	10	6.3	2	2.9
20년 이상			2	2.9
합계*	159	100.0	68	100.0

* 손자녀 양육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6년에서 10년이 66명(41.5%), 11년에서 15년이 42명(26.4%), 1년에서 5년이 41명(25.8%)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에는 1년에서 5년이 42명(61.8%), 6년에서 10년이 15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물리적 환경

분석대상 연구에 참여한 조부모의 물리적

표 15. 연구참여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배우자 있음	27	28.4	48	67.6
배우자 없음	68	71.6	23	32.4
합계*	95	100.0	71	100.0

*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환경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배우자 유무, 성인자녀세대 동거여부, 표집 지역, 경제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참여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8명(71.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8명(67.6%)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5와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와 성인자녀 세대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인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았지만(94.4%), 공동양육가족에서는 성인자녀세대와 동거하는 조부모가 51.5%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표집지역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70.8%, 공동양육가족의 100%가 도시에서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7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100%가 하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고, 공동양육가족은 중류층이 72.2%, 상류층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6. 연구참여 조부모와 성인자녀세대 동거여부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동거함	6**	5.6	53	51.5
동거하지 않음	102	94.4	50	48.5
합계*	108	100.0	103	100.0

* 자녀세대와의 동거여부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 본 연구의 참여대상 중 조손가족에서 조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자녀(혹은 자녀배우자)들이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가출을 빈번하게 하여, 일반적인 조부모 + 부모세대 가족의 생활환경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손자녀 양육에서 자녀세대와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조부모가 담당함

표 17. 연구참여자 표집 지역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도시	46	70.8	89	100.0
농촌	19	29.2		
합계*	65	100.0	89	100.0

* 표집지역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8. 연구참여자 경제상태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상			18	20.0
중			65	72.2
하	164	100.0	7	7.8
합계*	164	100.0	90	100.0

*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연구내용 분석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의 주된 내용은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갈등 해결방법’ 등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경험을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하여 종합한 후, 상위범주별 하위범주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하위범주는 가족형태에 따라 공유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경험으로 구별되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경험은 ‘심리적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양육의 의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육의 의미 범주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은 6개의 하위범주로, 공동양육가족은 7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하위범주 중 6개는 두 집단 간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의 조부

표 19.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의미 연구내용 분석

상위 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의미	내 핏줄 내가 거둬야	- 어쩔 수가 없음 - 소극적 책임감	내 핏줄 내가 거둬야	- 남에게 맡길 수 없음 - 적극적 책임감
	나의 업보	- 부부불화, 이혼, 양육소홀 등 본인의 잘못된 삶에 의한 결과임 - 자녀를 잘 못 키운 내 탓으로 돌림	나의 경제력 부족에 의한 결과	-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물려준 것이 없어서 자녀가 맞벌이를 한다고 자책함
양가감정	- 손자녀가 가여움 -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고 자녀에게 분노함	양가감정	- 딸이 안쓰러움 - 양육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음	
자신의 존재감 확인	- 나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믿음	자신의 존재감 확인	- 자신을 비생산적인 존재감에서 생산적 존재감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됨	
삶의 활력소	- 손자녀는 조부모 삶의 연장이고 삶의 활력소라 생각함	삶의 활력소	- 손자녀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 희망, 보람을 느끼게 하는 보물같은 존재라고 생각함	
공생관계	-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고 손자녀는 조부모를 돌보는 공생관계라고 생각함	공생관계	- 대리양육자로서 딸의 발전과 성인자녀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 성인자녀로부터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음 -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함 - 조부모가 서로의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함	
		보상심리	- 과거 자신의 자녀양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손자녀 양육을 통해 보상하려 함	

모들 모두 손자녀가 핏줄이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가정이 해체되어 손자녀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당황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은 조부모 본인의 삶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자녀

를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양육 시 손자녀가 가엽다 보니 조부모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유지시키려는 것이 손자녀 양육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물려준 것이 없다는 자책감 때문에 성인자녀

인 딸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인 자녀인 딸을 안쓰럽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최선의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성인자녀 및 그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손자녀 훈육을 담당하는 등의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다른 점은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과 손자녀 양육을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범주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과 공동가족은 모두 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은 대부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 가족의 조부모 모두 손자녀를 양육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해체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통해 책임완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공동양육의 조부모들에 비해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외면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손자녀 양육이 가정을 복구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가졌던 성인자녀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족관계가 화목해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과거 자신이 양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재의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게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유능감을 얻게 되고 외로움이 감소되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손자녀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삶에 대한 통찰이 증가하여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에게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것과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은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에게서만 나타나는 경험이었다.

양육의 갈등 요소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육의 갈등 요소 범주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모두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에게서 그 내용 상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발생하고 있는 부모사랑의 부재 및 심리적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어려움과 성인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손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건강 악화 뿐 아니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회한 역시 갈등의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손자녀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생활의 자립 및 의료적 지원이 부

표 20.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내용분석

상위 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기쁨과 행복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에게 깊은 정이 생기고,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됨 	기쁨과 행복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양육은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함
	삶의 의미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짐 - 손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생김 	삶의 의미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로 인해 손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삶의 의미가 생김
자부심 및 가치감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를 키우며 책임감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감을 느끼게 됨 	존재감 및 만족감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가족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됨 - 책임완수에 대한 만족감 -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주변에서 인정받음 - 손자녀 양육을 통해 전통과 지혜의 전달자라는 존재의 유용감 느낌
	손자녀와 서로 의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에게도 손자녀는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됨 - 조부모가 아플 때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봐줌 	성인자녀와 상부상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음 - 성인자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보완해 줌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양육을 통해 흩어졌던 가족들(성인자녀) 이 다시 모이게 됨 -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짐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족관계가 화목해짐 - 조모와 조부의 관계가 좋아짐 - 성인자녀(특히 딸)와의 관계가 좋아짐 	
분노 줄어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질 수록 성인자녀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음 	노년기 삶이 확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감소하면서 긍정적 정서가 증가함 -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짐 - 삶에 대한 통찰이 증가함 - 양육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이 커지고 건강이 증진됨 	

표 21.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갈등 요소 내용분석

상위 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갈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의 부모사랑에 대한 결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의 부모부재와 부모사랑 결핍에 대한 심리적 상처가 커서 가슴이 너무 아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시간동안 어린 손자녀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줄 수 없어 힘들
가족관계의 갈등 및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자녀와 연락이 안됨 무책임한 성인자녀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큼 양육과정에서 손자녀와의 갈등이 자주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자녀 및 자녀배우자와 양육방법으로 갈등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성인자녀의 무관심이 섭섭함 손자녀양육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소홀하여 배우자와 갈등 특정자녀의 손주를 돌봐줌으로써 다른 성인자녀와 갈등이 생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든 양육과 고된 가사 일에 몸이 힘들 건강이 점점 악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보는 시간이 일일 8-9시간으로 근로자와 맞먹는 수준 양육으로 인해 소홀해진 가사활동에 부담이 많음 갱년기, 노화, 우울증 등으로 신체적 부담 느낌 	
양육 및 훈육 실제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정보부족으로 손자녀의 학습이 걱정됨 손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함 손자녀의 학습 및 또래관계 문제가 많음 사춘기 손자녀의 문제행동과 세대차로 인해 양육이 어려움 빈곤으로 인해 손자녀가 반항하고 힘들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및 훈육 실제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돌보는 역할이 버거움 손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훈육이 어려움 손자녀 학습지도가 어려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사에 대한 수치심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못함 조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되어 괴로움 일반 가정의 조부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불쌍함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회한이 밀려옴 준비없이 손자녀를 맡게 되어 황당하고 난감함 자기돌봄의 부재로 에너지가 소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기 경제감이 약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 양육은 노년기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 속상함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낌 노년에 잃은 자유로 허탈함 성격도 변하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마음이 듦 오랜 양육지원으로 친구관계 유지 및 취업이 어려워짐 사회적 역할이 제한됨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옮기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 	
불안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손자녀의 홀로서기가 걱정됨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미래가 사면초가 상태로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손자녀 성장 후 양육지원 중단 시의 경제적 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양육지원 지속 시 건강악화, 개인생활제한 등의 문제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이에 대한 양가감정 	
경제적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빈곤, 궁핍함으로 손자녀 양육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미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자녀가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취업 활동을 해야함으로 양육을 지원할 수 밖에 없음 	
사회적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손가족에 대한 생활자립지원 및 의료 지원 부족으로 손자녀 양육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지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지지체계가 부족함 	

족한 것 역시 손자녀 양육에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가 모의 맞벌이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모에 대해 그리워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점을 갈등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양육 시 발생하는 성인자녀와의 양육갈등,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주된 갈등요소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년기의 손자녀 양육은 노년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허무함, 자조적인 마음, 자유와 관계 및 역할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노년기 정체감이 약해지는 것이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조부모와는 달리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성인자녀의 경제적 미자립으로 인해 양육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갈등의 요인으로 호소한 것도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모두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손자녀의 양육 및 훈육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 내용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분석되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이미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손자녀가 빈곤이나 조부모의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 노심초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춘기 손자녀와의 세대차도 어려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역시 손자녀의 양육 중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갈등의 요인으로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훈육 및 양육의 어려움이 갈등의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험하고는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범주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은 8개의 하위범주로, 공동양육가족은 모두 10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양육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도 그 내용상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내가 아니면 남아 있는 혈육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핏줄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악착같이 살아오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끝까지 손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주변 및 사회에 경제적 및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가정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성인자녀 세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경우에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식, 흡연,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성인자녀 및 가족들에게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 지원을 받고 거주 장소를 분리시키는 등 성인자녀 가족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해결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여 받기도 하고, 양육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표 22.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내용분석

상위 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양육갈등의 해결방법	자기관리	- 손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긴 강관리에 힘씀	자기관리	- 부적절한 방법(파식, 흡연,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지역사회 지원받기	- 교회, 사회복지관, 구청 등의 지역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받음 -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 받음 - 손자녀 교육지원을 요구하고 지원받음	지역사회 지원받기	- 지역사회 관계개선 프로그램 참석 함 - 어린이집 이용 - 국가나 사회에 별도의 지원정책을 요구하지 않음
	신앙생활의 힘	- 신앙생활을 통해 힘든 과정 극복함	신앙생활의 힘	- 신앙생활을 통해 힘든 과정 극복함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 같은 처지의 가정 보고 위로를 얻음 - 주변의 인정과 격려 받으면서 힘을 얻음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 주변의 인정과 격려 받으면서 힘을 얻음
	성인자녀세대와 관계 회복 노력	-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함	가족 간 협의	- 성인자녀와 상호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함 - 성인자녀 및 그 외 가족, 배우자에게 지원 받음 - 성인자녀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함
	세월이 해결	- 손자녀가 성장해서 철이 들 - 손자녀가 성장하여 조부모를 돌봄 - 세월이 흘러 어려운 고비가 지나감	시행착오 끝에 얻은 평온	시행착오 끝에 노하우 생김
	혈연에 대한 가치관	- 혈연중심의 가치관이 나를 지탱해 줌 - 핏줄에 대한 강한 결속력과 책임감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	육아와 개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고용하여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 - 가사노동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스스로 낮춤 -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됨 - 어린이집 및 외부기관 이용하여 여가시간 확보함 - 취미생활을 가짐
	현실을 인정함	- 현실을 인정하고 악착같이 살아움	거리두기	- 돌봄장소와 거주 장소 분리 하여 개인 공간 확보함 - 양육 철회를 통해 내 생활을 찾음
			성인자녀에게 요구함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보상을 당연히 요구함 - 노후를 위한 물질적 자원으로 생각 함 - 원하지 않는 것 성인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제시 함 - 성인자녀로부터 양육 및 훈육 권한을 요구하고 위임받음
			감정 다스리기	- 감정관리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성인자녀에게 말조심, 감정 악화 시 대화 중단함 -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의 양육 갈등 시 참고 넘어가려함 - 스트레스 대처방법 가지고 있음 -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함

성인자녀에게 양육 및 훈육의 권한을 위임받아 좀 더 적극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의 경우 국가에 별도의 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에, 가족 간에 협의를 거쳐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대화를 중단하거나 말조심을 하는 등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 모두 손자녀 양육 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손자녀의 성장 및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해가는 지혜를 터득하기도 하였고, 신앙생활 또한 중요한 갈등해결방안의 하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연구한 질적연구 43편을 기초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연구논문의 게재 수와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분석대상 논문 43편에 참여한 조부모 368명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양육배경을 분석하였다. 양육경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 및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양육 갈등 요소, 양육 갈등해결방법 등 네 가지 상위범주로 나누었고, 각 상위범주별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각에서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

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각 하위범주와 심리적 경험에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게재 질적 논문 수를 5년 간격으로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는 2006~2010년에 가장 많았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는 2011~2015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손가족 조부모 대상 질적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 대상 질적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인자녀의 맞벌이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통계청, 2013)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사용된 연구방법은 심층개별면접과 현상학적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봉환 등(2012)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심층면접에 의한 인터뷰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경향을 연구한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현상학에 비해 합의적 질적연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술(description)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보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자는 관점을 지닌 현상학적 연구(Giorgi, 1970)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연구대상 특성 중 연구참여자 수는

두 유형의 가족 모두 6명~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권경인과 양정연(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연구대상 특성에서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연구 참여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70대, 무학,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60대, 고졸,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환경과 관계가 있는데 조손가족의 경우 성인자녀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가 거의 50%에 해당되어 친조모가 1명의 손자녀를 6~1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는 연구참여 조부모 모두 성인자녀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조모의 양육이 가장 많았고 1~2명의 손자녀를 1년~5년 동안 공동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공동양육의 경우, 손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인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체제로 변화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환경에서는 두 유형의 가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고되었는데, 연구 참여 조손가족의 경우 파악된 가족 모두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참여 조손가족의 발생배경이 성인자녀의 이혼 및 재혼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주원인이고, 대부분의 조손가족 대상 연구들이 저소득층의 요보호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동양육가족 조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중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상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한 경우도 20%에 해당되었다.

넷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양육의 의미, 긍정적 요소, 갈등요소, 그리고 갈등해결방법의 4가지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상위범주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범주와 심리적 경험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의 양육경험은 동일한 하위범주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한 예로, 조손가족 조부모는 내 핏줄을 내가 거두어야한다는 강한 신념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만든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딸의 경제활동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런 점을 연구참여자 특성과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대부분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는, 외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성인자녀가족이 해체될 경우엔 손자녀는 대부분 친조부모가 맡게 되고, 일반가정에서는 아들보다 딸의 자녀를 돌봐주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인자녀가족의 해체여부가 조부모의 친 혹은 외손자녀에 대한 양육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의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나의 업보’와 ‘공생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자녀가족의 해체를 자신의 부부생활과 부모역할이 적절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손자녀 양육을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여 자녀부부가 힘들게 맞벌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며, 양육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려

하였다. 양육의 의미를 공생관계로 보는 경우에도,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조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양육지원을 하고 자녀세대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손가족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얻는다고 보고한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가 공유하는 부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특히 조손가족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으로 관계가 단절되었던 성인자녀와 연결이 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청소년 한부모 종합대책 연구 1(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연구 2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을 2년간 추적하여 보고한 이들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가 단절되었던 원가족과의 결합 및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이었다. 한편,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자

녀 양육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사회관계망이 확장되었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증진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Neugarten(1973, 장휘숙 2008 재인용)이 제시한 5가지 조부모의 역할유형 중 기쁨추구형, 대리부모형, 지혜의 원천형은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가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었다고 느낀 부분은 Neugarten의 세가지 역할유형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조부모에게서는 ‘노년기 삶의 확장’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분노가 감소되는 것’이 이와 상응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되었다. 사실 성인자녀의 가족해체와 관계 단절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양육은 후에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소가 되어 손자녀에게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Brian, 2000; Solomon & Marx, 1995)). 그러나,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지원정책은 손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및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통찰과 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의미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갈등 요소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모두 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해, 조부모는 신체적으로 고단함을 느끼고, 개인생활의 제약으로 우울감을 느끼며, 양육방법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Mueller, Wilhelm과 Elder(2002)는 손자녀 양육을 하는 조부모를 ‘개입형 조부모’로 분류하고 조

부모의 역할이 신체적 노동력을 요구하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장휘숙(2008; 2012)도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할 때,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성인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며, 부적절한 손자녀 양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년기는 발달적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Jarvick, Eisdorfer, & Bloom, 1973; Katona & Shankar, 2004)이므로, 이시기 동안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조부모는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는 사후에 홀로 남겨질 손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감이 높은 것도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와의 차이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양육갈등요소의 해결방법에서도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상이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경우, 민간과 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가족, 성인자녀와 합의를 통하거나 육아와 개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 등을 통해 갈등요소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성인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의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양육 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조손가족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현실과 자신의 신세를 인정하고 악착같이 살거나, 세월이 약이라는 마음으로 손자녀가 얼른 크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결론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손가족의 경우 거의 대부분 빈곤의 문제가 조부모에게 무력감을 주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공동양육 가족에서도 경제적인 보상은 매우 중요한 양육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성인자녀들에게만 책임지게 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와 긍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손가족이든 공동양육가족이든 상관없이 조부모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사회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 손자녀 양육은 조모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노년기 여성의 심리적 욕구를 고려한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 주변의 지지 뿐 아니라 성인자녀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Minkler, Roe, & Robertson-Beckley, 1994)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주관적인 지지가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에 더 효과적인 것(Musil & Ahmad, 2002)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한 정서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내에서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엔 공동양육가

족의 조모의 경우, 성인자녀와 조모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한다.

넷째, 두 유형의 가족 조부모 모두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휴식을 취하고 손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족의 조부모 모두 손자녀의 훈육 및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손자녀 양육을 위한 멘토링이나 손자녀 훈육방법을 다루는 조부모 양육태도 증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자조모임을 결성하게 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전달체계 내에서 조부모의 성장에 초점을 둔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 상담 전문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배출되고,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전달체계 내에서 조부모들이 수시로 이러한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손자녀 양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부모 뿐 아니라 손자녀 모두의 심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시 분석대상 논문 별로 변인 제시 방법이 상이하여 연구참여자 수의 합계가 변인별로 다르게 집계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 시 범주별로 결측치가 많았으나 분석결과가 선행연구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대로 제시하였다. 추후 본 연구 주제로 질적 연구가 더 많이 실시된 이후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안정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자료로 국한되어,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실태를 이해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추후 이를 국외 자료와 비교고찰 한다면 조손가족 및 공동양육가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가 가능하고,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따른 사회적지지 체계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수의 국내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질적연구 유형에 따른 연구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3편의 논문에서는 모두 11개의 질적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연구방법은 연구주제나 연구설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부 주제별로 어떠한 유형의 질적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제한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추후 관련연구가 축적된 후, 세부 주제별 적용된 질적연구방법의 유형을 분석하면,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자료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으로 구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두 유형의 양육경험의 차이와 공통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부모양육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과 향후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표시된 논문은 표 19~22에 제시된 논문임.

- 권경인, 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미영, 윤희미 (201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0, 145-177.
-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김원경, 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연구, 38(3), 123-163.
- 김은정, 정순돌 (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175-203.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한부모가족종합대책연구 2.-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8, 341-378.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화옥, 김민정 (2014). 대리양육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0(3), 149-167.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청소년 한부모 종합대책 연구 1.-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 보고서.
- *서홍란, 김양호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67-296.
-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이미영 (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 327-353.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25-341.
-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2판).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조윤주 (2012).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267-294.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2009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 보건복지가족부.
- 최혜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혜순, 남효순 (2011).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3), 123-149.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http://kostat.go.kr>)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황미진, 정혜정 (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1-22.
- Backhouse, J., & Graham, A. (2012).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Negotiating the complexities of role-identity conflict. *Child & Family Social Work*, 17, 306-315.
- Baker, L. A., & Silverstein, M. (2008). Depressive symptoms amo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6(3), 285-304.
- Balukonis, J., Melkus, G. D., & Chyun, D. (2008). Grandparenthood status and health outcomes in midlife African American women with type 2 diabetes. *Ethnicity & Disease*, 18, 141-146.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Brian, S. T. (2000).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br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Ph.D. Dissertation. Arizona University.
- Chen, X., & Silverstein, M.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1), 43-65.
- Cox, C. (2009). Custodial grandparents: Policies affecting care.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7, 177-190.
- Creswell, J. W. (2012).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년 출판)
- Dowdell, E. B. (2004). Grandmother caregivers and caregiver burden.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9, 299-304.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 Green, R. (2004). The evolution of kinship carepolicy and practice. *The Future of Children*, 14(1), 130-149.

- Jarvick, L., Eisdorfer, C., & Bloom, J. (1973). *Intellectual functioning in adults*. New York: Springer.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Katona, C. L. E., & Shankar, K. K. (2004). Depression in old ag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4, 283-306.
- Kornhaber, A., & Woodward, K. (1981). *Grandparents/grandchildren*. Garden City, NY: Anchor Press.
- Minkler, M., & Roe, K. M., & Robertson-Beckley, R. J. (1994). Raising grandchildren from crack-cocaine households: Effects on family and friendship ties of African-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 20-29
- Morettia, F., van Vlietb, L., Bensingb, J., Deleddaa, G., Mazzia, M., Rimondinia, M... et al. (2011). A standardized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focus group discuss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2(3), 420-428.
- Mueller, M. M., Wilhelm, B., & Elder, G. H. (2002). Variations in grandparenting. *Research on Aging*, 24(3), 360-388.
- Musil, C. M., &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s: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1), 96-121.
- Sands, R. G., & 신혜중 (2008). 강점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아동의 경험. *한국가족치료학 회지*, 16(1), 157-172.
- Seltzer, M. M. (1976). Suggestions for the examination of time-disordered relationships. In F. J. Gubrium (Ed.),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pp.111-125).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Shlemo, S. B., Ari, O. T., Findler, L., Sivan, E., & Dolizki, M. (2010). Becoming a grandmother: Maternal grandmother's mental health, perceived costs, and personal growth. *Social Work Research*, 34(1), 45-57.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 U. S. Bureau of the Census. (2000). *The population profile of the United States: 2000* (Internet Release).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pop-profile/profile2000.html>
- Winefield, H. & Air, T. (2010). Grandparenting: diversity in grandparent experiences and needs for health care and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Healthcare*, 8, 277-283.
- 논문 투고일 : 2018. 07. 16
1 차 심사일 : 2018. 07. 18
게재 확정일 : 2018. 08. 27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Experience of Grandchild Rearing between Grandfamily and Custodial Grandparents in Korean Journal since 2000

Youngae Lee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unryoung Bang

Department of Child & Adolescent Welfare,
Hanse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ith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on the grandparents' parenting experiences of grandchildren between those with primary responsibility and those with partial responsibility in Korean Journals since 2000.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of 43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19 grandfamilies, 24 custodial grandparents), with respect to their objectives, basic annual trends, methodology, subject, category of cont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nual number of articles of grandfamilies are on a decreasing trend, while those of custodial grandparents are on an increasing trend. Secondly, the phenomenology and interview are frequently used in research of the two types of family. Thirdly, 6~10 participants were the most frequent number of participation in all of the family. However, demographics, caring circumstances, physical circumstan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wo types of family. Fourthly, caring categories of contents(the meaning, positive factor, conflict factor and resolution of conflicts) were also similar, while these were significant different in specific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all of the fami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suggestions for practical services and implication for future study were proposed.

Key words : grandfamily, custodial grandparents, grandparents, parental experience, qualitative study